

공화국에서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시대적요구와 급에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쳐갈 체육인들의 애국열의를 담은 새 경기복들을 만들었다.

축구, 탁구, 농구, 마라톤, 권투, 레스링, 럭비, 활쏘기, 물에 뛰어들기, 기계체조 등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체육 선수들이 입고 출전하게 될 경기복들의 형식과 색깔은 다양하지만 공화국기의 바탕 색인 붉은색, 흰색, 푸른색의 삼색으로 형상된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한덕수평양강공업대학의 최영만강좌장은 《경기복장은 선수들의 경기심리와 경기성적에 큰 영향을 준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 자기 나라 선수들의 몸에 맞는 경기복호수체계를 세우고 경기복의 기능성을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한덕수 평양강공업대학과 평양미술대학, 조선산업미술창작사, 평양시산업미술창작사에서 경기복발전의 세계적추세와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 중

국기를 형상한 새 경기복들

목별선수들의 몸매와 운동특성, 재료의 특성에 맞게 새 경기복도안들을 창작하였다고 한다. 경기복들은 람홍색공화국기의 삼색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종목별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장식요소들을 경배하고 부드럽게, 밝고 창창하게 기하학적으로형들을 배합하였다.

가령 축구, 농구, 탁구와 같은 구기종목경기복들은 종목별 운동특성에 맞게 형태를 단순하게 하면서도 명백하고 선명한 장식선으로 삼색을 조화시켜 만들었다.

럭기, 레스링, 권투종목경기복들도 중경기종목의 특성과 국제경기복장규정을 고려하면서 색과 장식을 잘 조화시켜 조선의 기상이 살아나도록 창작하였다. 기계체조, 예술체조, 물에 뛰어들기와 같은 경경기종목

의 경기복들은 부드러운 형태선과 화려한 장식효과, 활동적인 장식선의 도입과 색배합을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이밖에 연구사들은 종목별 선수들의 몸매특성에 기초하여 경기복의 공업적생산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경기복호수체계도 완성하였다. 종전에는 경기복을 국내에서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지 못하고 적지 않게 수입에 의존하였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도 축구, 배구를 비롯한 구기종목의 일부 경기복들밖에 만들지 못하였으므로 경기복규격은 대중체육종목을 비롯하여 몇개 종목에 한해서만 작성되어있었다.

이밖에 종목별운동특성들을 정확히 밝히는데 기초하여 구기, 중경기, 경경기 전반 종목에 대한 경기복호수체계

를 새롭게 작성함으로써 경기복설계를 과학화하고 경기복생산을 공업화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새로 제작한 경기복들에 대한 착용실험을 통하여 종목별 경기복의 맞춤성과 운동편리성을 검토한데 의하여 새로 만든 경기복을 입어본 체육선수들이 경기복이 몸에 꼭 맞고 활동에 매우 편리하다고 일치하게 말하고있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경기복을 입었을 때의 맞춤률이 70%였던것에 비해 새로 만든 경기복의 맞춤률은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세계적으로 경기복의 맞춤률이 90%라는것을 놓고볼때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한것으로 된다.

새로 만든 경기복을 입고 국제경기에 출전한 마라톤선수들은 다른 나라의 경기복

보다 설계가 더 잘터였다, 경기복이 몸에 붙고 달릴 때 아무런 지장이 없이 편안하다고 말하였다.

고도의 정신적집중을 요구하고 팔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활쏘기종목의 경기복도 활쏘기의 기본자세에서 피부늘기와 재료의 늘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팔꿈부분여유를 정확히 설정하고 겨드랑부분에 어순방향의 천을 소매와 편결하여줌으로써 선수들로부터 팔꿈부분이 몸에 잘 붙어 활쏘기와 팔운동에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국내에서 자체로 경기복을 생산보장할수 있게 됨으로써 지난 시기에 비해 경기복생산에 드는 원가도 훨씬 줄일수 있게 되었다. 경기복장들에 달게 될 공화국을 상징하는 마크로서는 조선의 국조참매를 형상한 마크가 선정되었다.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이제 곧 열리게 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새로 만든 경기복을 입고 출전하게 된다. 본사기자 홍범식

##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월정사 9층 탑

평양민속공원에는 고려시기의 유적 월정사9층탑을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은 모형도 있다. 원래의 월정사9층탑은 고려말엽시기에 세운 8각형돌탑으로서 강원도 (남)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에 있다. 8각다층탑들 가운데서 제일 단란에 위치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이 탑은 평면이 8각으로 되어 열핏 보면 부처의 받침대와 같은 느낌을 준다. 탑은 두층의 기단과 9층으로 된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졌으며 높이는 15.15m이다. 아래기단의 면돌과 감돌은 각각 4개의 돌로 이루어졌다. 면돌의 매 면에는 오목이를 2개씩 새겼으며 감돌우면에는 복련을 새겼다. 아래기단과 웃기단의 감돌우에는 띠 돌로 큰 고임을 주어 수평요소를 강조함으로써

탑의 무게를 둔구었다. 9층으로 된 탑몸은 다같이 몸돌과 지붕돌로 이루어졌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차례로 줄어 탑이 날씬해보이게 하였다. 조금씩 배부르게 만든 몸돌은 딱 온화한 느낌을 준다. 탑몸의 몸돌들에는 모서리기둥세김이 있으며 1층 몸돌에는 한면 건너씩 4개의 감이 있다.

지붕돌처마의 밑선은 곧고 웃선은 추녀쪽으로 들렸다. 처마받침은 3단인데 가운데것은 각을 죽여 둥글고 도드라지게 호형으로 처리하였다.

탑머리의 로반, 복발, 양화, 보륜은 돌로 되었으며 그우의 보개, 수연, 룡장, 보주, 모 등은 금속으로 되어있다. 민속공원을 찾는 해

외동로들은 수평요소를 강조하여 안전하고 날씬하면서도 무게있어보이는 이 월정사9층탑을 보며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본사기자 고영숙



축구경기복

마라톤경기복

## 추석과 관련한 민속풍습

◆추석의 유래 가을철의 제일 큰 명절은 추석이다. 추석은 우리 겨레가 조상전례로 쇠여온 큰 명절의 하나이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있는 민속명절이기도 하다.

옛 기록에 의하면 우리 겨레는 세나라시기부터 8월 보름날을 《가위날》, 《한가위》 또는 《가배》라고 하면서 큰 명절로 쇠여왔다. 《가위》는 어느 무렵 특히 좋은 때 (가을의 중간) 라는 뜻이고 《한》은 《큰》, 《모든》,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 말이다. 그리고 《가배》는 가위라는 말의 리두식표기이다.

한가위를 8월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좋은) 때라는 뜻에서 《중추가절》이라고도 하였다. 또한 그날 밤에 달구경을 한다고 하여 추석이라고도 불렀다.

이날쯤이면 보내 여름내 땀흘려 지은 온갖 곡식들이 무르익게 되고 나인들이 풍

물길쌈도 마감짓게 되는터에서 풍작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며 즐기 위하여 달이 제일 밝은 보름날을 명절로 정한것이다.

◆성묘(묘보기) 추석맞이에서 중요한것은 조상의 묘를 돌아보고 추모하는것이다. 세나라시기부터 우리 겨레는 추석날이 오면 어느 가정에서나 자기 손으로 심고 가꾼 낱알로 성의것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조상의 묘를 찾아 추모제를 지냈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아침부터 묘보러 가는 사람들로 길 이 메었다. 햇곡식으로 만든 송편과 설기떡, 송과 과일들을 큰 그릇에 담아 머리에 이거나 손에 들고 길을 제축하였다. 선친들의 산소를 찾아 봉분위에 자란 잡초를 베고 장마비에 씻겨내린배를 손질하였으며 주위를 깨끗하게 거두고나서 레의를 표시하였다.

◆달구경 추석날 밤의 달구경은 깊은 정서를 자아내는 이채로

운 명절의례였다.

하늘중천에 은백색의 큰 달이 떠오르면 사람들은 달속의 계수나무도 찾아보고 약질구를 쥘는 옥토끼의 모습도 더듬으면서 조용히 마음속소원을 외쳤으며 소박한 꿈이 담긴 노래도 불렀다. 구름 한점 없는 달밤은 하늘을 보면 올레의 풍작은 틀림없다고 믿어 기뻐하였고 구름이 끼면 낱알이 잘 여물지 못할것같아 걱정하였다. 어떤 지방에서는 아이들이 술가지나 수수대, 새끼오리로 《문》 같은것 (이것을 《달집》이라고 한다.)을 만들어놓고 그뒤에 주그리고 앉았었다가 달이 그안에 들어가면 《달이 달집에 들었다.》고 기뻐 떠들썩거리다가 불을 달아 태워버리는 놀이를 하였다. 그러면 묵은 달은 타버리고 새달이 떴다고 하였다. 비록 아이들의 놀이였지만 다음해의 풍작을 바라는 동심이 비긴 재미있는 놀이였다.

본사기자

## 교양, 수양 (3)

《곡식과 사람은 가꾸기에 달렸다.》

곡식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부지런히 가꾸어야 잘되고 사람은 어려서부터 옳게 가르치고 잘 교양하여야 훌륭하게 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소년교양은 금 주고도 못 산다.》

젊은 나이때에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부지런히 일하며 생활실천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것은 사람이 자립적인 생활을 창조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물들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흐르는 물에서 웃쪽의 물이 맑아야 아래쪽의 물도 맑은 법이라는 뜻으로 웃사람의 태도나 행동은 아래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모든 면에서 아래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선인장은 공기속의 해로운 물질을 흡수하는 힘이 다른 화초들보다 강렬히 세다. 밤이면 선인장은 공기속에

## 가정에서 선인장을 많이 키우면

안소를 내보낸다.

그러므로 가정들에서 선인장을 많이 키우면 환경을 개

조선훈경왕조시기 철학자이며 정치가였던 리이가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앓아누웠다.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지성을 다해 간호를 하였으나 효험이 없었다. 어느날 아버지결을 지고있던 리이는 열이 몹시 나서 입술이 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다못해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서 아버지의 입술에 넣어주었다. 약을 달여가지고 들어오던 외할머니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곳이 할수 있을 뿐 아니라 만성호흡기질병, 뇌혈전, 고혈압환자들에게 효과가 매우 크다. 본사기자

《할머니, 걱정마세요. 옛날책에 이렇게 해서 부모의 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어요.》 《아니 원... 손가락이 아프지 않느냐?》 《아버님이 아파 고통을 겪으시는데 손가락이 아픈게 대수가요?》 이 말을 들은 외할머니는 허를 끝갈 차며 《이이구, 넌 정말 지독한 효자로구나!》라고 말하였다. 아들의 지성이 효험을 보았는지 아버지의 병은 완치되었다고 한다. 본사기자

관서8경 평양의 련광정,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경정, 녕변의 약산동대, 안주의 백상루, 의주의 통군정, 동림의 동림포도, 성천의 강선루. 관서8경의 명승지들은 주로 강기슭의 벼랑, 산, 옛 건물 등이 잘 어울린 강변경치가 대표적이다. 본사기자

##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낙지를 몸에 품고 다니거나 바지가랭이안에 넣고 동여매고 다니면 뱀이 달라붙지 않는다. 뱀은 낙지나 문어의 뱀새를 매우 싫어한다. ◆양말이나 신발속에 뱀반가루나 그 부스레기들을 넣고 가면 뱀이 접근하지 않는다. 본사기자

뱀은 뱀반뱀새를 싫어하기때문에 아예 멀리 피하고 만다. ◆양말을 신고 바지가랭이를 동여매고 살이 드러나지 않으면 뱀에게 물려도 뱀독이 옷에만 갇아들고 몸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본사기자

## 사화 불독하니 글리빈, 그림 김윤일

이러한 양서방에게 있어서 백호는 금덩어리로서 귀중한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선한 시조의 상징, 그제의 존엄을 뜻하였기때문에 결단코 잃어버릴수 없는것이였다.

왜놈헌병들의 발자국은 노루메기발판으로 곧추 이어지고있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수삼파령을 넘었겠다? 하다면 정말 금산포로? ...그것들이 그 해변가로는 왜? 거기에서 남포가 멋리니 되는가고 물었다. 이 거기로 갈 작정인가?...)

양서방의 머리속에는 여러가지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 수삼파령은 구월산을 남북으로 갈라놓는 잘루목으로서 《십리교개》라고 불리울만큼 높고 험하였다.

구월산의 동쪽인 안악, 재령 등지에서 은몰이나 장연 그리고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외통목인 노루메기발판을 거쳐 수삼파령을 넘어야 한다. 구월산의 주봉인 사항봉위의 수삼파골짜기를 꼭

따라나가면 해변가 금산포에 이른다. 까닭에 수삼파령을 넘는놈들이 금산포를 목적했다고 가정한 양서방의 생각은 무리가 아니였다.

이로부터 의혹이 결가지를 쳤다.

놈들이 금산포로 갔다면 배를 타고 갈작정인가? 바다로 나갈 작정이 아니라면 무엇때문에 멀고 험한 눈길을 탄단 말인가? 한쪽 배를 탈 작정이 틀림없지 않는가. ...

어느모로 보든지 자기의 추측이 타당하다고 믿고보니 스스로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내가 꼬리를 불들기 전에 그놈들이 배에 오르다면?...)

양서방은 배를 탄 놈들의 모습에 금방 눈앞에 안겨오는듯싶어 가슴이 서늘하였다. 놈들의 꼬리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급급한 마음속에 또 다른 불안이 머리를 들며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다.

이제 맛다들 놈들은 총칼로 무장하였는데 다섯이나 된다. 그런데 나는 혼자일뿐 아니라 손에 툄깃한 도끼 한자루밖에 없다. 놈들을 모조리 쳐죽이고 백호를 뺏아 갔으면 속이 시원하려면, 누군가의 방조가 없이 혼자서는 놈들 다섯을 당하지 못할것이다.

무슨 신통한 방도가 없을까? 사방 20리 무인지경을 벗어나서 첫 동네가 고향마을인 룡연이다. 그곳은 동쪽인데 지금 나는 그 반대인 서쪽으로 가고있지 않는가. 앞길에는 방조받을 희망은 거의나 없다. 수삼파령의 동쪽인 노루메기발판은 물론 수삼파령을 넘어 사항봉과 오봉사이의 수삼파골만 20리 여간에는 인가가 없으니 《십리교개》령마루는 말할것도 없고 서쪽 수삼파골안이나 지금 가고있는 령 동쪽의 노루메기골안이나 다 합치기 그지없이 대낮에도 혼자서는 법이 무서워 다니지 못하는

곳이다. 여기서 놈들과 맞대들린다면?...

요행 만가하는 사람이라도 하나 만나면 얼마나 좋으랴 싶어 눈이 아프도록 앞을 살폈으나 산짐승조차 한마리 없었는지 찾아 물어방은 속이 탈대로 뒹다. 드디어 그는 어쨌든 신암동까지 가고 보자고 마음을 애써 늦추었다. 서쪽으로 수삼파골안을 다 빠져나가면 신암동마을이 나타난다.

겨울의 짧은 해는 어느덧 아득히 먼 산마루를 가까이 하고있었다.

문득 놈들을 따라잡기 전에 어둠이 탁쳐들자보아 양서방은 더럭 겁이 났다.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백호를 뺏아오라면 주저스님의 목소리가 귀전에 쟁쟁히 울려와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그것은 마음뿐이었고 몸은 제자리걸음 한가지로 굼뜨게만 움직였다.

다리는 깊은 눈속에 평평해졌고 세월음에 한번은 미끄러져 자주 눈구렁이속에 처박히곤 하였으나 언제 눈이 털어버릴 사이가 없었다.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허리는 몸시도 시큰거

렸다. 그만에야 양서방의 입에서는 서늘픈 한탄이 흘러나왔다. 《아, 한 십년만 젊었어도...》

온몸에 땀이 철철 흘렸다. 확확 풍기는 목안 겨불내에 숨이 막혔다. ... 드디어 오막살이 몇채가 드



문히 들어앉은 신암동에 이른 양서방은 첫집에 다달으자마자 다급히 대문을 두드렸다. 응답이 전혀 없었다. (!?) 조금중에 쫓긴 나머지 양

서방은 버럭 소리질렀다. 《주인 있소? 빨리 좀 나오소그레.》 《...》 그는 문을 더 세게 두드렸다. 그제서야 한참만에 안에서 《생판 모를 사람한테 어떻게 문을 열어준단 말이요. 더구나 이 집안에 남정이라곤 그림자도 없는데...》라는

늑은 녀인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래도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양서방은 반기며 더더욱 간절히 사정하였다. 《나를 좀 도와달라구요. 늑은 녀인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래도 사람의 목소리가 울려나오자 양서방은 반기며 더더욱 간절히 사정하였다. 《나를 좀 도와달라구요.